

6) 6월

(1) 유 두

유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김극기의 『김거사집(金居士集)』에서는 이것을 “육월망일욕발어동류수발제(六月望日浴髮於東流水拔除)”라 진술하고 있다. 이는 순수한 우리나라의 발계(拔禩)행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민속이 전해져오고 있는데 부인네들이 이날을 맞아 동쪽 물가에 가서 머리를 감거나 혹은 물을 길어 와서 머리를 감는다. 또 물맞이를 이날 하기도 하여 무병과 제액을 기원한다. 이때 재배되는 수박, 오이, 참외 등으로 차례를 지내고 하루를 쉰다.

유두날에는 용신 또는 고랑님네에게 곡식의 수확량을 정하는 때라고 하여 들에 나가 일을 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기면 그 고랑의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한다. 이날은 용왕제라고 하여 간단히 떡을 장만하여 논이나 밭가에 두고 농사가 잘되기를 빈다.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되며 병충해가 없다고도 한다. 또 마을 단위로 이날은 충제를 지내기도 하며, 빨래를 해 널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